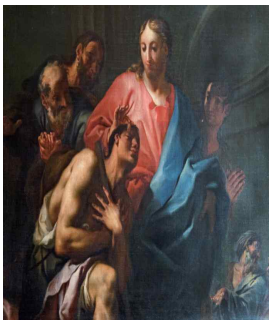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치유』, 안젤로 트레비사니, 1715~1720,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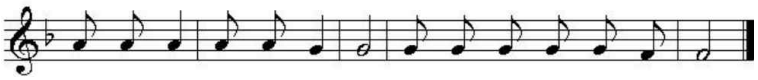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1사무엘기 16,1ㄱㄹㅁㅂ.6-7.10-13

화답송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에페소 5,8-14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 | 요한 9,1-41

성가

입당성가	117	지극한 근심에
예물준비	220	생활한 제물
성체성가	172	그리스도의 영혼
파견성가	490	십자가에 가까이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신동은 엘리사벳
남정희 아녜스	이은경 헬렌
한민호 가브리엘	김윤수 미리암
김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김지영 유스티나
루이즈 몬드리	한안나, 데레사
배계수, 안부자 소피아	배옥희 소피아
박난성 프란치스코, 양세양 요셉	양미숙 마리아
민병택 베드로 기일미사	민재인 데레사

생미사	봉헌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정다경 마리아
허철범 베드로	서지석 야고보 가족
냉담중인 이원경 모니카 가정	조성자 데레사
신윤길 요셉 영명일 축하	요셉회
크리샤박, 브라이언 몬드리	한안나, 데레사
허철범 베드로 쾌유	하늘처럼 성가대
이영주, 이민재, 김계현 생일축하	하늘처럼 성가대
김태희 레아 영명일 축하 3/22	노희정 데레사
김승범 프란치스코 생일축하	하늘처럼 성가대
김옥지 아가다	김승범 프란치스코
허철범 베드로 쾌유	김승범 프란치스코
임택근 치유	양미숙 마리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2
3월 19일	김야고보	민필립보	정콘솔시아	정콘솔시아	유유스티나	이아멜리아 한데레사
3월 26일	이율리안나	강대건안드레아	민안젤라	민안젤라	김카타리나	이아멜리아 한데레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3/19(오늘) 다미아노홀 쉽니다.

미국본당 행사로 다미아노홀 오전 친교모임, 오후 성경공부 없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시기 공동 실천사항

1)본당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참석하려 노력하기
2)매일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지향: 고통받는 모든이들(지진, 전쟁, 가난, 질병, 소외등등) + 한반도 평화기원
3)'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하루에 5번이상 하기 예/ 가족, 이웃, 하늘, 바다, 바람, 나무등. 나한테도 거울보고 사랑한다, 고맙다고 격려해주기

▶교우분들과 함께드리는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3/19(일)	청년회	각 단체에서 4명 필요 : 십자가 1 주송1 초2
3/26(일)	양업회, 성령기도회	
4/ 2(일)	연령회	
4/ 7(금)	사목회, 단체장, 전례부	
주일 오전 8시 30분 아래 성당		

▶판공성사

사순시기중의 모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성사표는 성사보신후 사무실 앞 통에 넣어주세요

▶3/19(오늘) 아치에스(ACIES, 봉헌사열식)

'은총의 샘 꾸리아' 아치에스가 아래성당에서 개최됩니다. 오셔서 성모님께 대한 헌신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레지오 행동단원, 협조단원. 시간: 11Am-3Pm.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 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

▶2023년 바자회포스터, 티켓디자인 도와줄 봉사자모집

연락처: 강경모 토마스(바자회 추진 부위원장)
Tel: 310-413-1653, 카톡: Kangkenny

▶미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료 교육

4/13(목)-4/16(일), 요한 바로오 2세 피정의집, Kearny, NJ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미사전 성경봉독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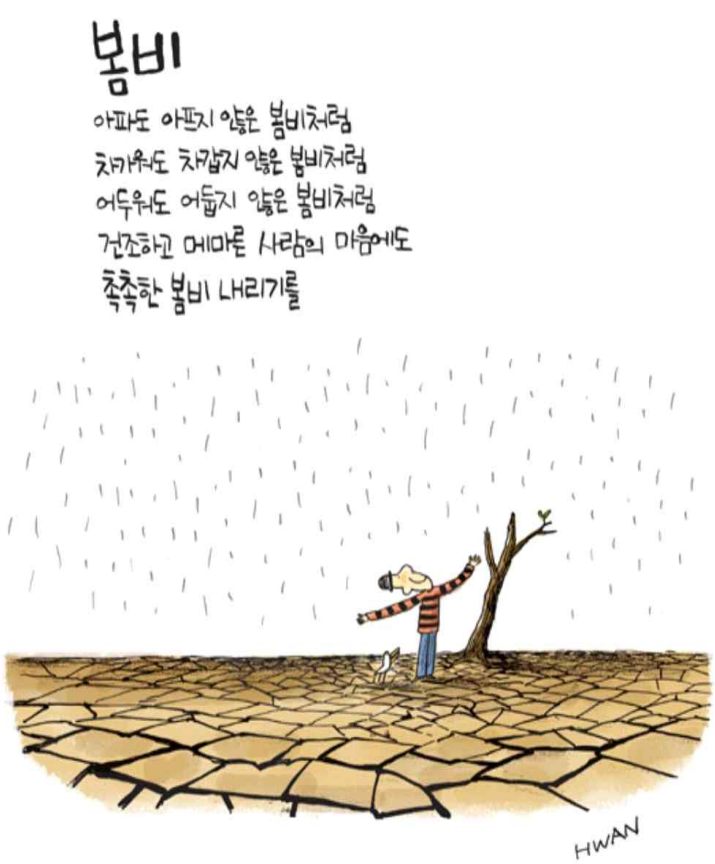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1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단체 모임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Rm(2F)
우리즐거움의원천 Pr.(청년)	매주 주일 11:00	교육관2D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	교육관3B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교육관3A
청년회	첫째 주일 12:30	교육관2A
청년찬양팀(야훼이레)	1,2째 토 15:00	교육관3B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7:30	Rm(2F)
신명풍물패	2~5 주일 14:00	교육관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교육관1B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교육관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1B
꾸리아	셋째 주일 12:00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교육관2A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주일의 말씀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나경일 펠릭스 신부

예수님께서는 오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들 중에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이들도 있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생 소경들에게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가족과 지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찬란한 햇살과 대지에 낮게 깔린 아침 안개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짐작해보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본 태생 소경은 그 놀라운 일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틈도 없이 상상하지 못했던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마치 그가 눈을 뜬 것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 마냥 혼란스럽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눈을 떴냐고 따지며, 또 그렇게 해준 이가 누구인지 캐묻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으니 그 사람은 분명 죄인인데 당신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으냐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답변을 강요합니다. 소경의 부모에게는 이 사람이 정말 태생 소경이 맞느냐며 억지스러운 팩트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바리사이들의 공격과 몸을 사리기 급급한 부모의 외면, 그 한가운데서 태어나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한 자세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증언합니다. 바리사이들의 공격에 맞서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 하면서 스스로 증언하던 중에 그는 또 깨달아갑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얼굴도 모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고 이윽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하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비로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꼭 알아봐야 할 것을 알아보는 진정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눈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고 믿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소경과 특정한 목적 때문에 눈앞의 엄연한 현실조차 부정하며 외면해버리는 바리사이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 극명한 대비를 신앙인들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러려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눈 뜬 장님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꼭 봐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눈, 세상 모든 일들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